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상을 여위는 생각 자체가 ‘헛것’

증생불 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라 말이며, 어찌 실감이 안 가겠느냐 말이며,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알아야 돼. 이거 적혈구 백혈구가 모아진 거라 말이며, 일초 동안에 약 삼십만 마리가 죽어 나가고 일초 동안에 약 삼십만 마리가 살아 나온단 말이지. 이거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게 가족주머니나 이렇게 생각 하라 말이며.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몽땅 갈 때는 흙구멍이나 불구멍으로 들어 갈 거다. 이래 생각하면 이젠 진짜가 아니다. 이걸 끌고 다니는 놈이 절대성자라 다 이젠 상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곧 납득이 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여러분 절대로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또 과학적으로 맞아요. 과학적으로 틀린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라고 해서 실법을 들어야 이것이 실감이 가지, 그만 육신으로서인 내다 가족주머니로서인 내다 색신으로서인 내다 이런 생각하면 도저히 실법이 납득이 안 갑니다.

버려야지 뭐 할 거예요. 힘도 없고 술도 한 잔 마음대로 못 먹고 술 한 잔 먹으면 취해 버리고, 허허허, 싹싹 버리고 새 몸 받지. 그러나 허공으로서인 내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렇지 색신으로서인 내라 하면 말이지 아무리 늙어서 이러한 몸이라도 한시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 이거 잠 죽는 법 잘 내놔요. 그거 안 내놔요면 큰일 날 뻔 했어요. 만날 이 꼬라지, 만약 이 꼬라지가 지고 억 년이나 허공같이 살면 뭐할 거여. 다리가 아파 찌떡찌떡 하고 학교도 한 번 못 가보고, 학교도 다시 한 번 가보야 되고 공부도 한번 해보야 되고 환궁처럼 회사에도 한 번 다녀보야 되고, 하하하. 그거 다 장난이거든. 이런 장난 안 하고 어쩔 거냐 말이며.

그러하니 좌우간 어떻게든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으로서 모든 실법을 들어야

법하는 내 입을 빌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지만 이 실법을, 진짜 이 실법을, 이발 하겠다. 저 말 하겠다 하는 것은 무형무색인 허공, 꼭 허공과 같은 법신이 이걸 빌어서 나불나불나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꼭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해 봅시다. 머리없는 쇠소의 헛바다에 실법을 한다 이젠 답을 써 오세요. 간단하게 말이지. 그리고 그 답 남 보여 주지 마세요. 여러분만 알아서 써 오세요. 이 답이 옳으면 옳다고 하겠고 그러면 그 큰 대로 사고 방식을 고치면 되겠다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공부하 됩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건 그 말이고 우리가 상을 여의어야 해요. 우리가 상을 여의어야 한다지만 상을 여인다는 것이 모순된 말이에요. 뒤바뀐 생각이 딱 붙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상을 여의어 있어. 왜 그러냐. 이거 헛거라 헛거라. 이거 완전하게 일초를 못 가지고 있어. 여러분의 몸통이 단 일초를 가만히 못 있어. 한 쪽에서 죽고 생기고 죽고 생기고 이래. 이걸 알아버리면 상속에 들어앉아서 상을 여의어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꾸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서 이 변하는 걸 내 몸이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상을 여인다는 건 뭘이지? 제일 쉬운 거여. 아 이거 헛거로구나. 헛거란 것에 딱 실감이 가면 이 상을 덮어쓰라고 해도 거기에 안 머물러. 이렇게 상을 여의는 법이에요. 만약 나는 상을 여의어야 되겠다 하면 나는 여의어야 되겠다는 상을 하나 더 덮어쓰거든.

상을 여의는 법은 아, 이거 헛거로구나. 요거 내 법신이 이걸 임시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절로 여기에 머물지 않아. 이것이 상을 여의는 것이지. 나는 상을 여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는 상을 여의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 하나 더 떨어지거든. 그러면 사상에서 오상이 된단 말이야. 이걸 단단히 알아야 돼. 보살님들, 이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헛거로만 알면은 저절로 여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젠 내는 이걸 여의어야 되겠다 하면 나는 이걸 여의어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 더 붙지 안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보살님들 단단히 들으세요.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좌우간 어떻게든 내가 기법 사해법 · 보림선원

“ 죽고 생기고 하는 몸통이는 단 일초를 가만히 있지 못한다
사람들은 상 속에 들어앉아 상을 여의고 있는 걸 모르고 뒤바뀐 생각을 한다.”

됩니다. 실법만 들을 거 아니라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으로서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귀한 말이 있어도 허공으로서인 내 팔이라. 또 귀한 아들이 있다면 허공으로서인 내 아들이라. 그런데 이거 변하는 거여. 내 팔도 변하는 거여. 자꾸 변해. 뼈도 신진대사가 돼서 변해. 몸통이도 신진대사가 돼서 변해. 아이들도 자꾸 변해. 이 귀여운 팔도 나중에 불구멍이 나 흙구멍이로 가. 불구멍이로 가면 한 줌 재로 나와. 흙구멍이 묻으면 한 삼의 흙으로 나와. 내 귀한 팔이 그리 돼. 내 귀한 아들이 그리 돼. 귀한 손자가 그리 돼. 이걸 모르고 말이지 아이고 하고 좋아서 뭐 어찌고저찌고 이래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좌우간 어떻게든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으로서 이 말 들으세요. 그리하면 이 쇠소의 소식을 알아. 머리 없는 쇠소의 헛바다에 실법을 하는 줄을 알아. 아가 내가 말했죠? 내가 실법하지 않는다 하는 거. 실

지심 참회하면 올바른 믿음 생겨

⑩-5 보개회향

11. 보위사승부모급선지식법계증생단 제삼장동등왕상여미타불귀명참회 (善爲師僧父母及善知識法界中生斷除三障同得往生阿彌陀佛國歸命懺悔)

至心懺悔
南無懺悔十方佛 願滅一切諸罪根
今將久近所修善 廻作自他安樂因
恒願一切臨終時 勝勝勝境悉現前
願觀彌陀大悲主 觀音勢至十方尊
仰願神光蒙授手 乘佛本願生彼國
至心歸命阿彌陀佛 懺悔廻向發願已

이제까지는 보현심원(普賢十願)이었고 이것은 별원(別願)이다. 특별히 원을 세우고 참회한다는 뜻이다. 보현심원은 보통 일반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별원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들, 널리 스승님과 부모님과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일러주는 모든 선각자와 지도자들 즉 선지식(善知識)과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직접 간접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 자신이 탐진치(貪瞋癡)의 삼장(三障)을 끊어내고 또 동시에 그분들에게도 그 삼장이 끊어지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같이 끊고 같이 저 아미타불(阿彌陀佛)이 계시는 나라로 가서 깨진 자의 생활을 함께 영위합시다 하는 것이다.

“ 널리 스승인 · 부모님 · 선지식 ·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삼장을 끊어지게 하시고 함께 아미타불의 나라로 가게 하소서. 목숨을 돌이켜 반성합시다.”

거듭 말하거나 대화의 의식을 깨닫고 그런 생활을 함께 영위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돌이켜 모든 지난 일을 참회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반성한다.

그런데 이 참회(懺悔) 두 자를 풀이한 다면 참(懺)은 먼저 제 잘못을 드러내어, 나는 무엇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고친다는 것은 참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각별히 그리 안 하도록 수행을 닦아 나가는 것이 회(悔)다. 범어(梵語)로는 참회를 참마(懺摩 Chamma)라고 한다. 우리 말로는 회개한다, 과실을 뉘우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회향(廻向)과 신심(信心)을 얘기하며 참회를 들먹였지만 여기서도 다시 지심참회(至心懺悔)를 하여 근수익(勤修利益)한다. 부지런히 닦아

서 이익을 가져온다. 어떤 이익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래(如來)의 깊은 경계에 찾아 들고자 한다면 먼저 그릇된 신앙(邪信)이 아닌 바른 믿음(正信)을 가져야 한다. 중생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법은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을 구해야 되고, 이를 구하는 데는 첫째 허약한 마음을 이겨내야 한다. 글썽 어떻게 내가 그런 것이 되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 지밋하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결정이 안 되어 허둥지둥해져 버린다. 그래서 더욱 구애되는 것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조건에 얽매게 된다. 인간고(人間苦)에 허덕이는 사바세계(娑婆世界)에서 우리는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하지만 과연 이런 지경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될 수

사람은 방등불명경(方等佛名經)에 있는 말인데 일체의 만 가지 행동을 통해 다시는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일지 않도록 한다. 자기 생각의 성정에 따라 연비를 한다든지, 팔을 뜬다든지, 보살하기 위해 벌을 받는다든지 하여 자제한다.

이참은 유마경(維摩經)에 있는 말로 제성(諸性)은 본래부터 안과 결으로서, 그러니까 내용(內容)과 외형(外形)으로 그 자체(自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차계와 성계를 들었지만, 성계에는 술이 든다. 술을 마시면 정신을 흐리게 하여 심성을 어지러뜨린다. 심성이 어지러우면 일체 만 가지가 혼란되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싸움도 하고, 음란해 지고, 온갖 잡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오계(五戒) 가운데 술은 성계에 들고 살(殺) · 도(盜) · 음(淫) · 망(妄) 모두 차계(遮戒)에 들어간다. 죄(罪)의 성질은 계(戒)와 대비해보면 곧 알 수 있다.

업(業)의 성질을 잘 살펴 보면 이것이 실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 방심(放心)하는데서 전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물고 거처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착이나 체색(滯塞)이 없도록, 그런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참이다. 그리고 사람은 사건 하나 하나에 응응하여 그 업장을 제거하는 일. 이참은 뿌리째 뽑아 없애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참(懺)이 잘되도록 하는 일은 결국 열 가지 나쁜 생각, 십악업(十惡業)을 극복해 나가게 한다. 살생 · 도둑질 · 음탕한 짓 · 거짓부렁 · 술을 먹는 것 등 오계(五戒)인데 이를 부연하여 몸으로 하는 것, 살 · 도 · 음 · 망(殺盜淫妄), 입으로 네 가지(綺語 · 兩舌 · 妄語 · 惡口), 뜻으로 탐 · 진 · 치(貪瞋癡) 등 모두 열 가지다. 이 열 가지 어긋나는 짓을 바로잡는 일을 십선업(十善業)이라고 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주최 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행동으로 과오 범할 때 ‘차계(遮戒)라고 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성계(性戒)라고 한다.”

“ 심악업을 극복해 나가고 참(懺)을 행해 바로 잡으면 심선업이라고 한다.”

있을까? 무슨 복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지레 실망해 버리고 의욕을 포기하여 타락한다.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과오를 범하였을 때 이를 차계(遮戒)라고 한다. 누구를 쳤다든지, 훔쳤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하여 튼 뚜렷한 결과가 나타난 이 차계에 대해서는 각기 정해진 벌죄법에 따라 참회한다. 행동화되기 이전의 마음으로 어떤 모진 생각을 하였다든지, 누구에게 원한을 품었다든지 누구를 헐뜯고 벌렀다든지 하는 등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있다. 이를 성계(性戒)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자기의 천성(天性)에 심성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첫째는 사참(事懺), 둘째는 이참(理懺)이라 하는 것이 있다.

동방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집터와 주택풍수**」 수강생 모집

가을학기 개강 ▶ 2014년 9월 4일(목) ~ 16주

- 강의시간 : **목요일 18:00 ~ 20:00**
- 수 강 료 : 300,000원 (1학기)
우리은행 1005-602-240360 (예금주: 동방대학원대학교)
- 담당교수 : 이상무 (풍수지리학 박사)
- 모집정원 : 선착순 20명
- 교육목표 : 삶의 본거지이자 생활공간인 현대사회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다. 본 강의는 양택에서 필요로 하는 풍수의 기본이론을 포함하여 집터와 좌향, 지형지물, 건물 형태 그리고 건물 내부의 배치 등이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길흉을 양택 전반에 걸쳐 학습하고, 지식과 안목을 길러 양택풍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용적인 풍수교육을 지향한다.
- 교 재 : 가택풍수학, 나경, 유인물, 甲午年 民曆 외
- 양택 2급 자격증 : 1년 수료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총장명의 자격증 수여

■ 연락처 : 02)3668-9890 담당교수 : 010-2247-9007
■ 오픈길 : 4호선 한성대입구 6번출구 1111번, 2112번 동방대학원 하차

동방대학원대학교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의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사계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주내정법(사계단법) 강의”
(명리상담사가 꼭 갖추어야 할 비결)

일진만으로 내방자의 문점 목적과 생각을 짚듯이 읽어내는 상담기술이다. 명리 상담사를 꿈꾸는 초보자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며, 이론을 갖춘 실력자라도 사주내정법은 기본입니다. 예시주 선생께서 심도 있는 내용으로 핵심을 가르치는 강의를 합니다.

○ 교육기간 : **1학기(16주) 2014년 9월 5일 공개강의**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13:00 ~ 16:00 (3시간) (9월 5일 개강)**

○ 담당교수 : 예지수 (기문둔갑 / 실전명리 전문가 강사)
○ 강 의 료 : 30만원
○ 모집정원 : 20명
○ 교육목표 : 명리 상담사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현재 상황과 결과와 방법을 제시하는 사주내정법(사계단법)을 기초부터 실전 상담 활용까지 교육함 (명리 초보자도 쉽게 배워 상담할 수 있다)

○ 강의내용 : 자체교재

구분	학습 및 실습내용	구분	학습 및 실습내용
1주	사계단법 기초	11주~13주	인연법과 통변활용 ①②③
2주~3주	물상이론(1)(2)	14주	사계단법으로 보는 1년 신수
4주~5주	신살이론(1)(2)		
6주	애정운의 통변활용	15주~16주	사계단법을 활용한 명리비결 종합 풀이 ①②
7주	직업운의 통변활용		
8주	시험운의 통변활용		
9주	이사운의 통변활용		
10주	질병운의 통변활용		

동방대학원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8길 60
TEL: 02) 3668-9890 / 010-5264-5532